

업계의 권익은 스스로 보호해야



정해(丁亥)년 돼지띠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한해도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고 대처하시어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은 회원분들과 협회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뜻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7월12일 건교부가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지급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도에 통보함으로써 경유택시의 등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수송용 부탄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택시 고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판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입된 배송센터 시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형저장탱크 보급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의 충전 사업자 판매량 취합, 500k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 안전 관리자 선임 제외, 벌크로리 이충전충전소의 저장능력 완화 등의 내용이 액법시행규칙에 반영되

특히, 프로판분야에 있어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제고, 부탄분야에서는 경차의 LPG화와 LPG RV차량 확대 등에 힘쓰겠습니다.

고, LNG의 탱크로리 공급을 연간100만루베 이상으로 제한키로 가스공사와 합의함으로써 LNG 탱크로리의 확산에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반면, CNG택시의 출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LPG 수입사·환경협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레조와 뉴카렌스 외에 생산되지 않고 있는 LPG차량 문제, 차단기능형밸브 부착 의무화 등 많은 현안 과제들이 우리 업계를 위협하고 있어 더욱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협회는 용기관련 비용절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배송센터의 확대,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 제한, LPG차량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조사, 경차의 LPG허용, LPG세 미나 개최, 한·중·일 LPG업계 교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프로판분야에 있어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제고, 부탄분야에서는 경차의 LPG화와 LPG RV차량 확대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업환경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2007년도 역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협회가 앞장서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업권은 우리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자세로 사업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원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1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회장 유수륜